권태윤 재경안동시향우회 명예회장 대종회 방문

권태윤(동정공파, 33世) 재경안동시향우회 명예회장과 권종숙(별장공파, 37世) 태사문학회 회원으로 수필가이자 시인이 1월 9일 14시 대종회를 방문했다. 권태윤 명예회장은 안동이 고향으로 독립투사 권중석(權重錫, 동정공파, 32世, 1926~1994) 선생의 아들이다. 애향심이 남달라 재경안동시향우회 회장을 6년 동안이나 맡아 안동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다. 권태윤 회장은 리더는 정직하고 실력과 포용력을 겸비하며 받기보다는 줄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장 낮아야 하고 폼잡고 머리 들면 끝나는 그런 시대라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향우회 일을 했다고 한다. 권태윤 회장의 가슴에는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연유한 안동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부친은 안동의 복싱 대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권태윤 회장도 아버지처럼 격투기인 복싱과 무술을 좋아하여 합기도 공인 7단이기도 하다. 권 회장은 운동으로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언행일치, 초심, 신의, 정직한 생활을 생활신조로 삼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명함에 새기고 다닌다.

권태윤 회장은 부친이 어린 나이에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광복이 되는 바람에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친은 그 공훈으로 2011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고 모친과 함께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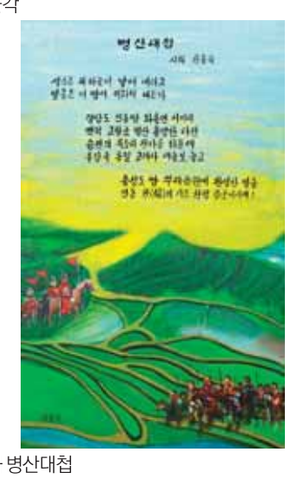
권태윤 회장은 안동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2022년 11월 재경안동시향우회에서 향토가수 노래비 건립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 누구도 지역 가수인 향토가수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행사에 초청하지도 않는 풍토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안동 월영교에 향토가수 노래비를 세웠단다. 그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월영교 노래비는 너비 약 2.1m, 높이 1.3m 규모의 자연석으로 노래 '월영교'(김병걸 작사, 김인철 작곡, 권승 노래)의 가사가 음각돼 있다. 김병걸 작사자는 가수 진성이 부르는 '안동역에서'를 작사하여 전국적으로 안동을 알린 장본인이다.

권종숙 시인도 안동이 고향이다. 명문 안동여고를 나와 교대를 졸업하고 평생 교편을 잡았다. 퇴직 후 시와 그림은 물론 수필도 쓰고 소리까지 배워 소리꾼으로 통하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때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시화를 그려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동안 딸이라서 여자라서 출가외인이라서 안동에 대해서 안동권문에 대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시화를 계기로 안동권문이라는 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권종숙 시인, 권태윤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왼쪽부터)

보물각

향토가수 노래비



시화 병산대첩

시화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 어릴적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등을 회상하며 시조 태사공과 태사묘, 병산대첩이 안동을 안동답게 하는 문화유적이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병산대첩지는 유적지 표시도 안 되어 있더란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 탐방단을 꾸려 권태윤 회장을 모시고 태사묘 등을 방문했단다. 어릴적 여자는 태사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퇴직 후에서야 그야말로 처음 기대를 잔뜩 하고 태사묘를 방문했단다. 그런데 보물각에는 정작 유물은 없고 보수가 끝나는 대로 유물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안내문만 붙어 있어서 너무 실망했단다. 보수기간도 벌써 3년이나 경과한 시점이라 더욱 놀랐다고 한다. 이 작은 건물을 3년이 지나도 보수를 못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무슨 연유로 보물각의 보물이 보물각에 없는지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란다. 혹시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단다. 관계기관에서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취해 안동국학진흥원에 보관하고 있는 보물각의 보물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태사묘 관계자를 비롯해 안동권씨 대종회와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안동김씨종친회와 안동장씨종친회와 뜻 있는 안동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태사묘 방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권종숙 시인은 '태사묘 문턱을 넘으며' 라는 시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다 병산대첩지와 태사묘와 능동과 제비원과 봉정사 일대를 묶는 시내관광벨트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8면)

권태윤 회장은 권종숙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안동에 갔더니 안동권씨가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하고, 안동에 역사가 있는데 안동에 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안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재 차원에서 유물과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숙 시인의 구상은 안동권씨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관광 성지 조성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구상이라서 앞으로 안동의 뿌리와 역사를 되찾는데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태사묘 문턱을 넘으며

권종숙

금녀의 집 태사묘,
남편과 사별 후에야
그 문턱을 처음 넘었다
어릴 적 조부님께 배운
유교의 가르침과 관습
참진리라고 여겼기에

안동 바닥 학창시절
삼태사 흠모하던 경모루
누각 계단 오르고 싶은 맘
속울음으로 꾹꾹 참았다
육이오 동란 그 와중에
이 땅의 딸로 태어났기에

삼강오륜 추종 일상
느슨해진 일흔 고개
비밀의 성역 안을
회한 안고 돌아보니
흘러 보낸 지난 세월
허망하고 억울하네

병산대첩 승전 도운
고려 여성 안중할매
지혜 용기 극찬 받고
탐욕없는 소원 고하여
태사 후손 제상 받으며
안마당에 쭉 계셨다하네

당당하던 고려 여성
자유 자존 발걸음에
조선 역사 유교이념
족쇄 채운 여자의 삶
남존여비 그림자 인생
당연한 줄 알았었네

녹슨 자물통 굳게 잠긴
보물각의 고려 보물
안동 국학진흥원에
셋방살이 나갔다하네
유물보수 핑계 삼년
어느 세월에 돌아올고

촉촉이 젖은 눈가
남몰래 훔쳐가며
태사묘 높던 문턱
낮아진 양 나서는데
환청인 듯 들려오는
그리웁던 그 목소리

'대견한 내 손녀야
고맙고도 미안했다
하늘 아래 세상 법도
뭣이 그리 중하다고
하지 마라 조심해라
금기로만 가뒀던가
호기심에 반짝이던
네 생각을 몰랐구나
여생길의 날들일랑
네 마음 네 뜻대로
여자 아닌 사람으로
새들처럼 구름처럼
자유로이 살아가거라'

황송하고 애달픈 눈길로
머~언 먼 하늘 바라보니
황금 노을 두루마기 걸치고
서성이던 검은 새 한 마리
근엄한 날개 퍼덕이며
서산마루 넘어가시네

동정

▲ **권도경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이 국민연금 기획 보도 등으로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권도경 차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도경 차장의 부친은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이다. 권오신 회장은 포항문화방송 기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부장 등을 지내며 한국언론상과 한국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도경 차장은 대를 이어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할아버지는 해은(海隱) 권영도 한시인(漢詩人)이다. 얼마 전 후손들은 서세 30주기를 맞아 해은시집(海隱詩集) 발간과 함께 해은시비(海隱詩碑)를 건립하였다.

▲ **권규현 교수**(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가 2023년도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다. 권규현 교수는 '제조기업 대상의 사용자경험 평가 프로세스 지원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책임 연구자로 10여년 동안 지식서비스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권 교수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청년 인재 양성사업(연구비 7.5억 원)도 수주한 바 있다.

▲ **권순덕 교수**(영산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가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성과보고회'에서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권 교수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개최한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및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데이터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 자문위원, 부산테크노파크 데이터산업 분야 지산학연 협력교육과정 개설 지원사업 참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 **권혁승(91) 원로 언론인**이 강원도민회가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강원인상'을 2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는 신년 하례회에서 수상했다. 그는 강릉이 고향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고향 핸다리마을에 사모정공원을 사비로 건립해 강릉시에 헌증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강릉전통문화 숨쉬는 효향'이라는 영문 책자를 만들어 외국 기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효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정립하기 위해 백교효문학상을 16년째 공모 시상하고 있다.

▲ **권혁태 디지엠유닛원 대표**가 2023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대표가 개발한 프랜차이즈 통합 솔루션 '큐브스위트'(CVVE SUITE)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다양한 운영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수발주, 고객 멤버십, 마케팅, 영업 관리, 슈퍼바이징 등의 기능을 하나의 프랜차이즈 ERP 시스템으로 통합해 제공한다. 특히 핵심 기능인 고객 멤버십 서비스는 단계별 고객 유입 전략을 통해 기존의 멤버십 서비스 대비 12배 높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대상으로 발권돼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쿠폰은 키오스크와 포스(POS) 등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 **권오성 총경**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28대 서장으로 지난 12월 29일 취임했다. 권오성 신임 목포해경서장은 대구영신고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경찰간부 후보생(47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동해해경서장,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동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 남해지방청 안전총괄부 구조안전과장, 제주지방청 기획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권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해바다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권문의 출마 예비후보자 현황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1월 24일(수) 14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안동권문의 출마 예비후보자는 모두 30명으로 파악되었다.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자유통일당 등을 비롯한 4개 정당과 무소속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6명, 진보당 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2명, 경기도 10명, 충청북도 1명, 충청남도 1명, 전라남도 2명, 경상북도 2명, 경상남도 1명, 강원도 1명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과 부산 순이다.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안동권문의 모든 출마자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뜻하는 대로 국회에 입성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해 본다.
(출마예비후보자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 획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성동구갑	노원구갑	강동구을	동대문구갑	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서구갑	대구 달서구병	대구 중구남구	인천 서구갑	인천 서구을	성남 분당구갑	부천시병	광명시갑
국민의힘	진보당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진보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권오현	**권민경**	**권태웅**	**권대성**	**권영문**	**권용성**	**권우문**	**권택흥**	**권영진**	**권영현**	**권순덕**	**권상기**	**권락용**	**권정선**	**권태진**

평택시을	안산 상록구을	고양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화성시병	포천시가평군	제천시 단양군	천안시병	여수시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포항시 북구	안동시 예천군	김해시갑	원주시을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혁부	**권호숙**	**권순영**	**권은희**	**권미나**	**권칠승**	**권신일**	권석창	**권오대**	**권오봉**	**권향엽**	**권용범**	**권용수**	**권통일**	**권이중**